

대통령기록관의 검색, 열람 및 연구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search Services of Presidential Archives in Korea

김 지 현 (Jihyun Kim)*

목 차

- | | |
|------------------------|------------------------------|
| 1. 서론 | 4. 국내 대통령기록관 서비스 현황 및 이용자 인식 |
| 2. 대통령기록관의 기록정보서비스와 이용 | 4.1 검색 서비스 |
| 3. 미국 대통령기록관 서비스 사례 분석 | 4.2 열람 서비스 |
| 3.1 검색 서비스 | 4.3 연구지원 서비스 |
| 3.2 열람 서비스 | 5. 결론 및 제언 |
| 3.3 연구지원 서비스 | |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소장기록물을 학술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13개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 열람 및 연구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 열람 및 연구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대통령기록관 직원 3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담 내용을 국내 현황조사에 추가하였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을 연구논문 작성에 활용해 본 적이 있는 이용자 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대통령기록관 검색서비스에 있어 통합 검색과 주제어를 통한 접근 및 연관된 기록물에 대한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있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의 제공과 함께 정보공개청구의 틀 안에서만 운영되는 열람서비스가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록정보서비스로 변화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관심 연구주제와 연관된 기록물을 제시하고 중요한 기록물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등 대통령기록관을 중심으로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서비스, 연구지원 서비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services of presidential archives in Korea for users who utilize holdings of the archives for scholarly purposes, as well as to examine users' perception of the services. For these purposes, the study analyzed the content of 13 U.S. presidential libraries' Web sites in terms of their research services. In addition, it examined the content of a Korean presidential archives' Web site regarding its research services. Telephone interviews of three staff members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were conducted to better understand the services. With this, three users who have written research papers by using presidential records were interviewed by telephone. It was found that federated search services, access by subjects, and related records of search results were considered necessary by users. A variety of digitized records should be provided online and the services needed should be changed from mere processing of FOIA requests to archival reference services to meet users' needs. Congruently, the presidential archives should provide specialized services to offer records relevant to users' research interests and to provide the compilation of selected records crucial for research.

Keywords: presidential archives, presidential records, archival reference services, research services, research-support services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im.jh@ewha.ac.kr)

■ 접수일: 2013년 7월 20일 ■ 최종심사일: 2013년 7월 26일 ■ 게재확정일: 2013년 8월 20일

1. 서론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직의 수행을 통해 생성되는 기록물이 가지는 다양성, 공공성 및 민감성을 바탕으로 동시대의 여러 사회상을 반영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대통령기록물을 통해 사료의 다양성에 기반을 둔 창의적인 사고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함양할 수 있다는 교육적 측면과 함께 관련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기록물의 활용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국내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교육적 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방식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대통령기록관 교육 프로그램이 제안되었다(김술 2013; 박성희 2010; 이진영 2012; 이현혜 2012).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적 활용 가치 이외에도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재임 시절의 정책과 시대상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학술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의 학술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들이 대통령기록물을 보다 편리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연구자들의 기록조사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대통령기록관 서비스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특히 국내의 기록정보서비스는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는 민원서비스로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부

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록정보서비스의 기능인 연구지원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대통령기록관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를 목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검색, 열람, 연구지원 서비스의 세 유형으로 한정하였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이나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연구 서비스(research service)' 혹은 '연구지원 서비스(research-support service)'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위의 세 유형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연구지원 서비스를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하고 있는데 연구조사 서비스, 전문가 서비스, 법률지원 서비스와 같이 연구 활동을 보조하는 기능으로 정의하기도 하며, 대학연계 활동, 연구비 및 장학금 지원, 학술대회 개최 등의 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설문원 2008; 전용호 2008).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원 서비스를 국내 연구들에서 제시된 다양한 기능들을 포괄하는 활동으로 보았다. 이와 더불어 기록을 검색하고 그 내용을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이용자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이므로 이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검색, 열람 및 연구지원서비스의 유형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사례조사로서 미국국립기록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이하 NARA)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13개 대통령기

록관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검색, 열람 및 연구지원 서비스 유형을 살펴 보았다. 또한 국내의 현황 조사를 목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 제시되어 있는 검색, 열람 및 연구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살펴 보았으며 관련된 서비스 제공 현황을 대통령 기록관 직원 3명에게 전화로 면담 조사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기록물을 연구 논문 작성에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 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였다.

2. 대통령기록관의 기록정보서비스와 이용

먼저 대통령기록관의 전반적인 서비스 체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해외의 대통령기록관 사례들을 참고하여 국내 대통령기록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조민지(2006)는 미국의 대통령기록관 중 트루먼, 케네디, 존슨, 카터 기록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웹사이트 사례조사를 기반으로 국내 대통령기록관 서비스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이 중에서 대통령기록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직대통령의 연구 및 사회활동 지원, 역대 대통령 관련 정책연구 지원, 역대 대통령 관련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검색도구 개발, 목록이나 해제집 제공, 온라인 원문서비스, 복사 및 우편 서비스, 공개재분류 기록목록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전용호(2008)는 초창기 국내 대통령기록관 서비스의 현황과 미국 대통령기록관 사례를 통해 기록물의 열람정책과 환경, 인력 현황 및 서비스 프로그램을 조사하였으며 영국과 호주의 수상기록관 서비스 현황을 논의하였다. 그는 열람서비스에 대한 제언에서 이용자 집단을 일반인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인 그룹과 공무원, 그리고 전직대통령의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차별화된 열람정책 및 환경을 제공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지원 서비스로서 연구지원 센터의 설립, 연구비 지원, 대학연계 프로그램이나 학술회의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였다.

이강훈(2011)은 국내 대통령기록물 중 16대 대통령 기록물이 820만 건으로 지나치게 한 대통령에 편중되어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전자기록물이 80% 이상이면서 웹기록에 대한 수집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기록이 수집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수집된 기록물의 정리, 기술 업무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고 서비스 제공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장애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검색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해영(2011)은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서 2010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입력된 검색어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용자들의 관심영역을 조사하였다. 검색어의 주제영역으로 정책, 업적 및 업무수행 관련 검색어와 대통령 및 주변인 이름과 개인사에 관련된 검색어가 가장 빈번히 입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색어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으며 검색어 빈도를 기반으로 이용자

요구가 높은 기록물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양우(2008)는 대통령 사진기록물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역의 이용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기술어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인문·사회 영역 이용자들은 사진기록물이 제시하는 문자정보, 물체정보, 주제정보 및 해석·감성정보와 관련된 기술어를 고루 제시하는 반면 건축·디자인 영역의 이용자들은 물체정보 및 해석·감성정보와 관련된 기술어를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공 영역에 따른 기술어 종류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통령 사진기록물에 대한 주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주제적 영역과 관련된 색인어를 제공하고 이를 검색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기록물이 생산부서의 기능별로 정리되어 있어 이용자 관점에서 검색과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광훈과 남영준(2013)은 대통령기록물의 주제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를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기록관련 기능분류 및 주제 분류체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분류체계 가안을 기반으로 16대 대통령기록물 6천 건에 대한 분류를 실시하였다.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통치적 특성을 갖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정무, 인사, 여론, 의견, 행정사무의 다섯 가지 대분류 항을 제시하였고 국가 운용과 관련된 기록물들은 행정업무 분석을 통해 19개 대분류 항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검색을 위한 방안으로 조현양과 장보성(2013)은 대통령기록관 및 민간 대통령도서관·기록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통합 DB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안을 제안하였다. 그 내

용으로 다양한 대통령기록물 유형 간의 관계 설정, 대통령기록물과 생산자, 서지, 소장기관 DB 등 다중 엔티티와의 관계 설정, 다양한 대통령기록물 유형에 대한 기술, 소장기관 업무 전주기 반영,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물의 통합관리와 장기보존을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가 포함된다.

대통령기록관 열람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선영(2010)은 대통령기록관을 포함한 6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열람서비스 담당자 12명을 대상으로 열람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의된 열람서비스의 의미는 기록정보서비스의 일환으로 정보의 제공과 검색, 물리적인 시설 및 도구로의 접근, 열람정책과 규정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국내에서는 정보공개서비스와 열람서비스가 혼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서비스의 관점에서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행정민원처리인 정보공개서비스와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대통령기록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최재혁과 김희섭(2009)은 기록관리학 전공자와 기록관리 관련 업무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역대 대통령 웹 기록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기록학 전공자와 기록관리 업무 담당자 등 잠재적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만족지수 중 서비스품질과 시스템품질에 대한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품질 중 응답성 및 공감성 차원과 시스템품질 중 상호작용 차원에서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로서 Conway(1986)는 미국의 4개 대통령기록관(presidential libraries)의 이용자 120명으로부터 수집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자 유형, 찾고자 하는 기록의 소재 파악 방식, 기록관 이용 경험, 기록관 방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절반은 교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들이 25%, 언론인이나 변호사, 공무원 등 전문가 집단이 18%인 것으로 나타나 약 75%에 해당하는 이용자들이 연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용자임을 알 수 있었다.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기록 접근이 일반적이며 기록관 이용경험과 준비가 없는 이용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기록관 방문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awcett(2006)은 미국 대통령기록관이 전직대통령에 대한 설명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보다 관광이나 기념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비판을 거울삼아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였다. NARA의 대통령기록관 책임부서의 아키비스트로서 저자는 기록물 기술과 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미국 대통령기록관 간의 연계와 통합을 강화하면서 각 기록관의 개별성을 존중할 것을 주장하였다. Smith와 Stern(2006)은 미국 대통령기록물의 접근제한과 공개 심의 및 비공개 기록의 공개 전환 과정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성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3. 미국 대통령기록관 서비스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미국 NARA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 13개관의 웹사이트¹⁾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검색, 열람 및 연구지원 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미국 대통령기록관은 'presidential library'이라는 명칭으로 개별 대통령 관련 기록물과 박물을 소장하면서 연구, 교육, 전시 및 공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장된 모든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Presidential Records Act of 1978)에 의해 국가의 소유임을 천명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기록관은 개별 대통령기록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통합 대통령기록관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국가가 전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국내 대통령기록관과는 달리 미국 대통령기록관은 민-관 파트너십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모델은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 생산한 대통령기록물과 개인 기록물 및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재단에 의해 민간기금으로 건립된 대통령기록관 건물을 국가에 기증하고, 국가에서는 기증 증서의 협상 내용에 따라 이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모델은 이후 존슨 대통령기록관 설립 당시 민간기금으로 건물을 설립하는 대신 텍사스 오스틴 대학(University of Texas-Austin)에서 건물을 설립하여 소유권을 갖고 기록관이 이를 영구 임대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의 호화로움을 규제하

1) NARA 웹사이트의 일부로서 'Presidential libraries' 제목 아래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설명 및 각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의 링크가 제공되고 있다. [cited 2013.8.2]. <<http://www.archives.gov/presidential-libraries/>>.

기 위해 대통령기록관법(Presidential Libraries Act of 1986)을 개정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전용호 2008).

이렇게 미국 대통령기록관은 그 역사와 운영체계에 있어 우리나라의 대통령기록관과는 차이가 있으며 조민지(2009)는 미국 대통령기록관에서 발생한 역기능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국의 기록관리 사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지양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의 기록 활용이 국내에 비해 미국 대통령기록관에서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국내 대통령기록관 서비스에서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13개 미국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메뉴 바(menu bar)를 살펴보면 10개 기관이 'Research'라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닉슨 대통령기록관은 'For Researchers', 카터 대통령기록관은 'Library/Research'라는 메뉴를 사용하고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Archives'라는 상위 메뉴 아래 'Research Services'라는 하위메뉴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연구에 이용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독립된 상위 메뉴로 제시함으로써 이를 대통령기록관의 핵심적인 서비스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들 메뉴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검색, 열람, 연구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3.1 검색 서비스

조사대상 기관들에서 제시하는 검색서비스의 내용을 소장기록 목록, 검색도구(finding aids), 키워드 검색기능, 주제 가이드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였다(〈표 1〉 참조).

〈표 1〉 미국 대통령기록관 검색서비스

기관명	소장기록목록	검색도구(Finding aids)	키워드 검색기능	주제 가이드
후버 대통령기록관	○	○	○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	○	○	○	
트루먼 대통령기록관		○	○	○
아이젠하워 대통령기록관	○	○		○
케네디 대통령기록관	○	○	○	○
존슨 대통령기록관	○	○	○	○
닉슨 대통령기록관	○	○		○
포드 대통령기록관	○	○	○	
카터 대통령기록관		○		
레이건 대통령기록관	○	○	○	
H.W. 부시 ²⁾ 대통령기록관	○	○	○	
클린턴 대통령기록관		○		○
W. 부시 ³⁾ 대통령기록관		○		

2) 미국 제 51대 대통령 George Herbert Walker Bush를 의미함.

3) 미국 제 54대, 55대 대통령 George Walker Bush를 의미함.

소장기록 목록에서 후버, 닉슨 대통령기록관들의 경우 텍스트, 시청각, 사진, 구술 기록물로 구분하여 각 매체별 소장기록 목록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매체 구분 없이 포괄적인 리스트로 제공하는 경우로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포드, 레이건, H.W.부시 대통령기록관이 있다.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Browse all collections'라는 메뉴를 제공하여 날짜, 제목, 유형 별로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준다. 아이젠하워, 포드, 존슨 대통령기록관들은 제목의 알파벳순으로 알파벳의 하이퍼링크를 제공하고 있고, 레이건, H.W. 부시 대통령기록관들의 경우 PDF 문서로서 소장기록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포괄적인 목록을 제시할 경우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의 경우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브라우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사 결과 모든 기관들에서 검색도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검색도구는 기록물을 일정한 표준이나 형식에 따라 기술한 결과물을 의미한다. 검색도구는 텍스트 문서로서 대부분 HTML 페이지의 형식으로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거나 PDF 형식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이전에는 이러한 검색도구들을 종이문서 형식으로 소장하고 있었으나 현재 대다수의 기록관들이 이를 HTML이나 PDF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대통령기록관들도 기존의 종이형태 검색도구를 온라인상에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색도구 제공에 있어 소장기록 목록의 제목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검색도구로 이동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후버,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포드, 클린턴 대통령기록관들이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기록물을 매체 유형별로 구

분하는 경우로서 닉슨 대통령기록관에서는 텍스트, 시청각, 구술 기록물 및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던 백악관 테이프를 나누어 각각에 해당되는 기록물에 대한 검색도구를 제공하며, 레이건 대통령기록관은 텍스트, 시청각, 사진, 연설로 나누어 검색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의 구분으로 트루먼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연방기록(Federal records), 개인기록(Personal records), 트루먼 컬렉션(Truman papers)의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검색도구를 제시하고 있다. H.W.부시 대통령기록관에서는 검증된 기록과 백악관에서 생산된 기록으로 나누어 검색도구를 제공한다. 가장 최근에 건립된 W.부시 대통령기록관에서는 검색도구를 하나의 PDF 문서로 제공하고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Finding aids databases'라는 메뉴를 제공하면서 브라우징뿐만 아니라 키워드 검색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색도구를 브라우징할 수 있게 제공하면서 키워드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기관은 모두 8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키워드 검색 기능은 기록물에 대한 검색 기능으로 한정하였으므로 기록관 웹사이트 전체에 대한 검색 기능은 제외하였다. 조사 결과 키워드 검색이 가능한 기록물의 범위에 있어서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었다. 후버, 루즈벨트,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전체 기록물에 대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였으나, 나머지 기록관들은 특정 유형 기록물에 대한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트루먼 대통령기록관에서는 대통령 캘린더에 대한 키워드 검색 및 날짜 검색이 가능하였고, 존슨 대통령기록관은 온라인 사진 아카이브에서의 키워드 및 주제어 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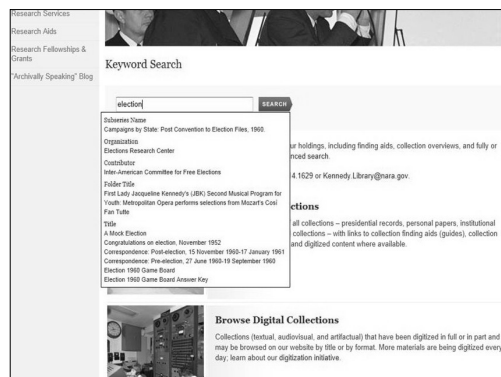
색과 대통령 일지(Daily diary)에 대한 키워드 및 날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포드 대통령기록관은 시청각기록물에 대해서만 구글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었고 레이건, H.W. 부시 대통령기록관에서는 대통령의 담화문, 연설, 뉴스간담회에서의 발언 등을 포함하는 공적 기록(public papers)에 한해서만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였다.

기록물을 주제어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주제 가이드(subject guide) 혹은 주제 색인(subject index)을 제공하는 기록관은 6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에서는 'Browse subject terms'라는 메뉴를 통해 이용자들이 주제어로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다. 주제어들이 각각에 대한 정의와 함께 알파벳순으로 제시되어 있고 주제어를 클릭하면 관련 기록물 목록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목록 내의 기록물 제목을 클릭하여 해당 검색도구를 볼 수 있다. 트루먼 대통령기록관의 주제 가이드도 비슷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닉슨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주제어와 기록물 목록을 연결시키고 있으나 관련된 검색도구의 일부에 대해서만 하이퍼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아이젠하워, 존슨 대통령기록관은 각 주제어에 대한 관련 기록물 목록을 PDF 문서로 제공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주제 색인이라는 명칭으로 주제어, 인명 및 기관명의 알파벳순으로 제공되며 각 색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통해 관련 기록물의 검색도구로 이동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검색서비스에 있어서 조사대상 기관 전체가 소장기록물에 대한 검색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모든 소장기록물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제공하는 기관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제 가이드를 제공하는 기관 역시 6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소장기록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접근점을 활용하여 검색을 제공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기관 중에서 특히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찾고자 하는 기록물과 연관된 기록물의 검색도구도 함께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관 기록물을 제공함으로써 검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검색어와 관련된 기록물을 검색창에서 미리 제시해줌으로써 검색의 용이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림 1>에서 검색어 'election'을 검색창에 입력할 경우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시리즈명과 기관명, 폴더명과 제목을 가진 기록물을 보여준다. 제시된 기록물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록물의 검색도구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국내 대통령기록관 검색서비스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케네디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 검색어가 포함된 접근점을 가진 기록물 제안

3.2 열람 서비스

조사대상 기관들의 열람서비스를 조사하기 위해 소장기록의 온라인 제공, 열람정책 및 규정, 기록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에 대한 설명, 대통령과 관련된 출판물 목록, 비공개 해제되거나 새로 수집된 기록에 대한 안내, 원격 이용자들의 연구관련 질문을 받는 통로인 'Ask an archivist' 서비스 제공 여부를 살펴보았다(〈표 2〉 참조).

조사대상 기관들 모두 소장기록의 일부를 디지털화하여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후버 대통령기록관은 사진 컬렉션의 일부와 구술 녹취록(transcript)을 제공하고,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에서는 디지털화된 텍스트 기록물과 사진,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를 공개하면서 일부 사진들은 플리커(flic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트루먼 대통령

기록관은 라디오 연설이나 보고와 같은 오디오 기록물과 사진들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고 사진에 대해서는 키워드 검색과 주제어 브라우징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기록관에서는 'Online Document'라는 메뉴를 통해 디지털화된 문서들을 공개하고 구술 녹취록들을 피면담자 성명 순으로 게시하고 있다.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에서는 개인 기록, 선거운동 관련 기록, 백악관에서 생성된 오디오 자료, 사진, 필름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이 디지털화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포드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일부 텍스트 기록물과 시청각 기록물 및 박물관 사진에 대한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있다. 카터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오디오 연설기록의 일부가 웹사이트에 존슨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일부 사진들과 대통령 일지 및 전화 대화록이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있으며 구술 녹취록도 제공되고 있다. 닉슨 대

〈표 2〉 미국 대통령기록관 열람서비스

기관명	온라인 소장기록	열람정책 및 규정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에 대한 설명	관련 출판물 목록	비공개 해제된 기록 및 새로 수집된 기록 안내	Ask an archivist
후버 대통령기록관	○	○		○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	○	○	○		○	○
트루먼 대통령기록관	○	○			○	
아이젠하워 대통령기록관	○	○		○		
케네디 대통령기록관	○	○	○			○
존슨 대통령기록관	○	○				○
닉슨 대통령기록관	○	○		○	○	
포드 대통령기록관	○	○			○	○
카터 대통령기록관	○	○		○	○	○
레이건 대통령기록관	○	○				
H.W. 부시 대통령기록관	○	○				
클린턴 대통령기록관	○	○			○	○
W. 부시 대통령기록관	○	○				

통령기록관에서는 'Virtual Library' 메뉴를 통해 백악관 테이프 오디오 기록과 비디오 형태의 구술 기록이 제공되고 있으며 일부 사진들은 'Photo gallery'를 통해 공개되어 있다. 공개되어 있으며 디지털화된 일부 텍스트 기록물과 사진 기록물은 NARA의 ARC(Archival Research Catalog)를 통해 검색 가능하다. 레이건 및 H.W. 부시 대통령기록관들에서는 일부 사진기록들이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있다.

클린턴 대통령기록관과 W.부시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이들 대통령의 재임 시절부터 생성된 웹 기록을 보존·제공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웹 기록에 대한 검색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클린턴 대통령기록관에서는 'Digital Library' 메뉴를 통해서 텍스트 기록물과 사진, 비디오 기록들을 일부 공개하고 있으며 재임 시 대통령과 영부인의 일정을 월별로 정리된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W. 부시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메일 등 전자기록을 소장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부 사진들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소장기록에 있어서 사진 기록물에 대한 디지털화 및 온라인 제공이 일반적이며 다수의 기관에서 오디오 및 비디오 기록물에 대한 디지털화를 추진해온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과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에서 다양한 매체의 기록물들에 대한 디지털화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닉슨 대통령기록관의 백악관 테이프와 같은 오디오 기록물은 연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온라인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클린턴 대통령기록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기록물들을 온라

인상에 제공하고 있다.

열람정책과 규정 역시 모든 조사대상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FAQ의 형식으로 띠고 있었다. 인용 형식과 복사, 저작권에 대한 설명은 모든 규정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내용이었으며 후버, 루즈벨트, 아이젠하워 대통령기록관들은 별도의 이용자 양식(researcher application form)을 제공하고 있었다. 후버 대통령기록관과 아이젠하워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증거자의 요청이나 대통령기록물법 또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기록물에 대한 접근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닉슨, 포드, 카터, H.W. 부시, 클린턴, W. 부시 대통령기록관들의 경우 기록물의 비공개 해제(declassification) 요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열람실 이용 절차, 열람실에 반입 가능한 물건과 불가능한 물건, 검색도구에 대한 설명, 상호대차, 비공개 기록이나 정리되지 않은 기록에 대한 열람에 대한 내용들이 제시되었다.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기관으로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과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이 있다. 이는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방문이용자와 원격이용자를 구분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다. 방문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오리엔테이션, 검색도구 및 DB 사용 안내, 연구에 필요한 자료 요청 안내, 셀프서비스 복사기 사용안내와 적절한 기타정보원에 대한 안내가 포함된다. 원격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자료 소장 여부에 대하여 전화,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통한 질의응답, 검색도구를 찾아보고 자료소장 여부를 파악하는 서비스, 유료 복사서비스 제공, 추가적인 기타 정보원 안내, 심층 연구를 위해 고용할 수 있는 프리랜서 연구자 정보 안내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로 구분하여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소장기록에 대한 정보 제공, 소장기록의 소재 파악을 위한 서비스, 관련 자료 안내, 제한된 상호대차 및 복사서비스, 저작권과 인용에 대한 설명,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 자료 이용과 관련된 교육 제공이 있다. 그러나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록물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는 심층적 연구, 기록물에 대한 금전적 평가나 비판적 검토가 있다.

관련된 자료에 대한 안내 서비스의 일부로서 대통령과 관련된 출판물 목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후버, 아이젠하워, 닉슨, 카터 대통령기록관들이 있다. 관련 출판물 목록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재임 시절과 관련된 2차 자료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용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대통령과 주변인물, 재임시절의 역사적 사건 등과 관련된 단행본들을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닉슨 대통령기록관에서는 대통령과 관련된 방대한 양의 도서,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카터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선거운동 관련 출판물, 카터 대통령에 대한 어린이 도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저술한 자서전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후버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연설집 등 대통령기록물을 담은 출판물과 대통

령에 대한 회고록을 관련 출판물로 제시하고 있다.

조사대상 기관 중 6개 대통령기록관에서는 비공개 해제된 기록물이나 새로 수집된 기록물을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지하고 있었다. 대통령기록물의 특성상 일정기간 비공개되는 자료들이 많으므로 공개 재분류를 통해 공개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에서는 대통령과 관련된 민간 기록들을 수집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에 대한 안내도 제공하고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과 포드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뉴스 메뉴에서 비공개 해제 기록물과 새로 수집된 기록물 및 디지털화된 기록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트루먼 대통령기록관과 클린턴 대통령기록관에서는 비공개 해제 기록(declassified documents)으로 표시되는 링크 및 메뉴를 통해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닉슨 대통령기록관과 카터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New Releases' 또는 'New materials'이라는 메뉴 아래 공개 또는 새로 수집된 기록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대상 기록관들 중 6개 기관에서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와의 온라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Ask an archivist' 또는 그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도서관에서는 'Ask a librarian'이라는 이름으로 이메일, 온라인 양식, 채팅 등 다양한 모드로 이용자의 질의를 유도하는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으며 기존의 정보제공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장시키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개 기관 중에서 'Ask an/the archivist'라는 명칭을 실제 사용하는 기관은 루즈벨트 및 케네디 대통

령기록관들이며 온라인 질의 양식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었다(〈그림 2〉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들의 질의를 안내하는 이메일 제공도 동일한 서비스로 간주하였다.

〈그림 2〉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
온라인 질의 양식

존슨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열람실(Reading room) 운영 시간과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Research' 페이지의 오른쪽에 제공하면서 연구 관심 영역을 질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포드 대통령기록관에서는 'Research' 메뉴 아래 'Contact us' 메뉴에서 이용자 질문의 종류를 대통령과 영부인에 관한 질의, 기록관 프로그램에 관한 질의, 박물관 프로그램에 관한 질의, 박물관 기념품점에 대한 질의의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연구와 관련된 질의를 별도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클린턴 대통령기록관에서는 기록관 관련 및 참고질문, 시청각기록물 부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관련, 일반 질문의 4가지로 구분하여 이메일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열람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 13개 기관 모두 소장기록의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온라인 콘텐츠의 다양성과 접근성에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었다. 열람정책과 규정에 있어서 제공되는 내용 요소에 차이는 있었으나 인용형식과 복사 및 저작권에 관한 내용은 공통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다수의 기관들이 정보공개와 관련된 접근 제한 및 비공개 해제 요청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소수의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이용자의 연구 및 기록조사활동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 중의 하나로서 관련 자료에 대한 안내 서비스인 대통령 관련 출판물 목록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었다. 비공개 해제된 기록과 새로 수집된 기록에 대한 목록을 제공하여 접근 가능한 소장기록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기관들도 있었다. 이용자의 연구 활동과 관련된 질의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6개 기관에서 'Ask an archivist'와 같은 온라인 정보제공서비스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서비스들은 연구 목적의 기록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3.3 연구지원 서비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연구지원 서비스의 유형으로는 연구비 및 장학금 지원, 대학연계 프로그램, 학술회의 개최 활동, 대통령 관련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등 다양하다(전용호 2008; 조민지 2006). 이 중에서 웹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연구비 및 장학금 지원, 대학연계 프로그램, 세미나 및 강연회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이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사대상 기관들 중 연구비 및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관들은 모두 8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과 H.W. 부시 대통령기록관은 연구비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비와 장학금을 함께 지원하는 기관으로 트루먼, 케네디, 존슨 대통령기록관들이 있다. 대통령 재임시절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 및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연구비가 제공되는데 예를 들어 존슨 대통령기록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연간 10,000 - 12,000 달러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행 지원비(travel grant)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아이젠하워, 카터 대통령기록관들이 있으며 포드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장학금과 여행 지원비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기관으로 존슨,

포드, H.W. 부시, W. 부시 대통령기록관들이 있다. 존슨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텍사스-오스틴 대학에서 건물을 설립하였고 대학 내에 존슨 대통령의 이름을 딴 공공정책대학원인 Lyndon B. Johnson School of Public Affairs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H.W. 부시 대통령기록관 역시 텍사스 A&M 대학 내에 건립되었고 부시 대통령의 이름을 따라 The Bush School of Government and Public Service가 공공정책대학원으로 설립되었다. 포드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포드 대통령의 모교인 미시건 대학-앤아버에 설립되었으며 1999년 포드 대통령을 기념하여 미시건 대학의 공공정책대학원을 Ford School of Public Policy로 개칭하였다. W.부시 대통령기록관은 부인인 로라 부시 여사의 모교인 남감리교 대학(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 건립되었다.

세미나 또는 강연회를 대통령기록관 행사로 웹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기관들은 루즈벨트, 케네디, 닉슨, 포드, 카터 대통령기록관들이

〈표 3〉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연구지원 서비스

기관명	연구비 및 장학금 지원	대학연계 프로그램	세미나 및 강연회
후버 대통령기록관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	○		○
트루먼 대통령기록관	○		
아이젠하워 대통령기록관	○		
케네디 대통령기록관	○		○
존슨 대통령기록관	○	○	
닉슨 대통령기록관			○
포드 대통령기록관	○	○	○
카터 대통령기록관	○		○
레이건 대통령기록관			
H.W. 부시 대통령기록관	○	○	
클린턴 대통령기록관			
W. 부시 대통령기록관		○	

것으로 나타났다. 세미나나 강연회는 공공 프로그램 성격을 띠는 행사이지만 관련 연구 및 저술활동을 수행하는 저자 및 연구자들이 강연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 부분 학술적 성격을 지닌 행사라고도 할 수 있다.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1998년부터 매년 5-10회 정도의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개최된 포럼에 대한 비디오 자료나 녹취록 자료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과 카터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관련 저술활동을 하고 있는 저자들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강연회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는 반면 닉슨 대통령기록관과 포드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이러한 행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국 대통령기록관들은 대부분 재단을 중심으로 연구비와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과 대학과 연계된 민간 협력 프로그램 운영 역시 공공기관으로 운영되는 국내 대통령기록관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하여 수행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주제의 발굴과 조사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연구비와 장학금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세미나, 강연회 또는 학술회의 등을 통해 관련 연구 및 저술활동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의 학술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4. 국내 대통령기록관 서비스 현황 및 이용자 인식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

기 위해 우선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검색, 열람, 연구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웹사이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 사항들을 질문지로 작성하여 대통령기록관에서 서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직원 면담은 웹사이트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실적인 정보에 대한 수집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부록 1〉 참조). 면담은 2013년 8월 1일에 이루어졌고 10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면담 내용은 노트 필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기록물을 논문 작성 등 연구에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 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직업은 교사(S1), 연구원(S2), 교수(S3)이었으며 이용자 면담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이용 경험과 대통령기록관의 검색 및 열람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부록 2〉 참조). 면담은 2013년 7월 24일과 26일에 수행되었고 평균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내용은 이용자의 허락 하에 녹음하였으며 녹취록으로 작성하였다. 직원면담과 이용자면담 모두 반구조화된 면담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4.1 검색 서비스

국내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서 검색기능은 '기록검색'이라는 상위 메뉴로 제공되어 있으며 기본검색, 상세검색, 분류체계검색, 빠른 검색 등 다양한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검색에서는 기록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

별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다. 제시된 기록 유형에는 전자기록물, 종이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선물, 기타, 온라인 콘텐츠, 웹기록물이 있으며 분류체계와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검색도 가능하다. 상세검색에서는 키워드의 불리언 조합이 가능하며 다양한 검색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미국의 대통령 기록관에 비해 국내 대통령기록관에서는 발전된 형태의 키워드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국내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 상세검색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검색도구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로 '분류체계 검색'이 있다. 여기에서는 전직 대통령과 대통령권한대행을 수행한 이들을 최상위 출처로 하여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등 대통령직 수행과 관련된 부서나 사업을 그 아래에 계층적으로 분류했으며 각 생산자를 출처로 하는 컬렉션에 대한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기술정보 영역으로는 식별영역, 배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열람과 이용조건 영역, 관련자료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색기능을 통해 분류체계 내의 기술 정보에 대한 검색도 가능하다. 빠른 검색의 경

우 자료 형태나 사건 및 활동을 나타내는 26가지의 카테고리가 제시되어 있고 각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관련된 기록물 목록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이 외에도 '기록포털허브'에서는 국내 대통령 관련기관 및 공공기록물 관리기관과 해외 대통령기록관 등 관련기관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소장기록목록은 '정보마당'이라는 상위 메뉴 아래 '소장기록공개제도안내' 하에 위치해 있다. 기록물 유형별로 목록을 브라우징할 수 있으며 목록 내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고, 월/년, 대통령, 생산년도로 검색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국내 대통령기록관에서 주제어로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은 아직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면담에 따르면 주제어 기반 검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주제 분류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현재까지 진행된 주제 분류체계는 개념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여 검색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대통령기록관 검색기능은 소장기록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에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어서 나라기록포털에서도 대통령기록물 검색이 가능하다. 면담에 참여한 이용자들 중 한 명은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나라기록포털을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나라기록포털에서는 대통령기록물도 같이 나오면서 주제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전문가들의 설명도 포함되어 있어 이용하기가 편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어떤 정책의] 발달과정 자체를 쫓아갈 수 있도록 체계화가 잘 되어 있고요, 주제별로 분류체계가 되어 있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그 자료, 정책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준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와 연관된 법령이라든지 회의록, 대통령기록관 같은 자료도 함께 각 단계마다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S2).

이 이용자는 나라기록포털에서 주제별 분류체계의 유용성과 함께 전문가들의 설명이 제공되고 연관 자료들이 검색되어 나오는 점을 큰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검색의 한계점으로 기록물 제목에 대한 키워드 검색만 이루어지고 기록물의 요약이나 본문에 대해서는 검색이 수행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키워드와 관련된 보다 다양한 연관 자료들을 검색 결과로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제가 사실 보고 싶은 핵심자료들은 대통령 기록관에도 나오고 나라 기록관 사이트에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괜찮은데, 문제는 사실 저는 조금 더 연관된 자료들도 같이 보고 싶거든요 [...] 최소한 요약문이라도 해놓고 그것이 검색되게 하면 좋을 텐데, 사실 그 자료 하나 하나의 요약까지는 해주지지 않더라고요(S2).

면담 참여자 중 교수인 이용자(S3)는 대통령기록물을 포함하여 공공기록과 사료 등을 소장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여 소장기록물에 대한 기관 간 통합 검색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1차 자료를 자주 이용하는 연구

자들에게 소장기관 별로 흩어져있는 기록물에 대한 통합적인 검색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 기관들이 그냥 가지고 있고 [...] 일종의 DB화가 되어있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또 시간과 비용을 구해서 구해봐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고 ... (S3)

이용자들의 관점에서 편리한 검색서비스는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물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검색 가능하고 기록물의 요약 내지는 본문 내용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통해 더 많은 연관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으며, 주제어를 통한 접근이 가능하고 기록물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기록물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통령기록관의 기록검색 기능보다 나라기록포털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큰 틀에서 검색을 수행하기에 용이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개별기관에서 발전된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공기록물과 사료 등 1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이 협력하여 통합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4.2 열람 서비스

국내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온라인 콘텐츠를 활동, 기록, 교육, 전시의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 연구와 관

련된 콘텐츠로는 활동과 기록 카테고리에 있는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활동 카테고리에는 역대대통령 소개와 취임식, 연설기록, 대통령일정, 임명인사, 해외순방에 대한 기록들이 제공되고 있다. 연설기록은 연설문, 음성, 동영상의 형태로 제공하며 연설기록에 대한 상세검색이 가능하다. 대통령일정은 초대대통령 재임 시기인 1948년부터 월별 또는 연대순으로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그림 4〉 국내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 온라인 콘텐츠

직원 면담에 의하면 연설기록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통령기록물 중의 하나인데, 면담에 참여한 이용자 중 교사(S1)인 이용자의 경우 연설기록을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었다. 이 이용자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 검색기능을 통해 대통령 이름으로 검색하면 특정 대통령에 대한 연설문을 쉽게 검색할 수 있었으며 특정 행사에서의 연설기록으로 검색조건을 제한할 수도 있어서 연설기록 검색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온라인 콘텐츠에서 기록 카테고리에 있는 자

료들로는 정책간행물, 공개기록물 해설, 사진 및 동영상, 대통령 서한, 웹 기록 등이 있다. 사진과 동영상은 선거, 공직활동, 영부인 등 1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대통령 서한은 이승만대통령 서한 44건이 공개되어 있다. 특히 웹 기록은 온라인 콘텐츠의 일부이지만 홈페이지의 상위메뉴로서 별도로 제공되고 있다. 직원에 따르면 웹 기록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에게 의해 자주 활용되는 기록물이라고 한다.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나라기록포털을 자주 활용하는 이용자(S2)의 경우 아직도 종이형태의 기록물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적어도 공개된 기록물들은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상에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이용자는 직접 대통령기록관에 방문하여 기록을 열람한 적은 없었으며 우편을 통해 복사물을 열람한 경험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았을 때 기록물 내의 한글 및 한자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독성이 낮았음을 언급하면서 사본의 선명도가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기록물 열람규정은 상위 메뉴인 '정보마당' 아래 '소장기록공개제도 안내' 메뉴에서 소장기록 이용안내, 수수료 안내, 열람실 방문신청 안내, 기록공개 신청안내, 우편 및 팩스 신청 안내, 비공개기록 열람신청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기록관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인용형식과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열람규정의 내용들은 모두 정보공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정보공개 민원처리의 틀 안에서 열람 서비스가 정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직원 면담에 따르면 열람 요청의 대다수는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며 논문작성 등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들이나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소수 있다고 하였다. 직원에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들이 전체 이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질문하였을 때 이용목적은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입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을 받았다. 방문하는 이용자들이라고 해도 방문목적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청구만 처리하게 되므로 이용 목적은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는 대통령기록관의 열람서비스에서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 요구를 파악하는 기록정보서비스의 과정 및 이용목적 등 정보 요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열람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관련하여 교수인 이용자(S3)는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려고 하다가 그 과정이 복잡하여 전화로 직접 직원에게 기록열람 요청을 신청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열람하고자 하는 기록 중에 기관 내부적으로는 공개 재분류된 자료이나 공표되지 않은 자료들이 있었고 직원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안내해 주어서 만족스럽게 원하는 기록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는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이용자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이 담긴 자료들이 비공개로 분류되어 열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공개된 외국 문서들에 의해서만 한국의 중요 사안들이 연구되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연구자로서 중요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는 아쉬움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공적영역에 속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한국문제가 계속 외국인이라든지 외국문서에 의해서 선점당하고 재단당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걸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현실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 문서 관련해서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불편함과 아쉬움이 있습니다(S3).

이 외에도 국내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서는 '비공개기록물 재분류목록'을 '정보마당' 메뉴 아래 제공하고 있다. 주요 공개전환기록물에 대해서는 기록물 제목, 내용, 대통령명, 생산기관, 생산일자 등으로 상세검색이 가능하다. 관련 출판물 목록은 홈페이지에서는 '즐거 찾는 메뉴 보기'의 '연구자마당'에서 '연구자료'를 클릭하여 제시되는 목록 내에서 '역대대통령 연구논문 현황집'이라는 엑셀 파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연구자마당'의 '발간간행물'에서 대통령기록관에서 출판한 간행물들의 PDF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록검색'의 '분류체계 검색' 내에서 일부 기록물 기술서 내용 중 관련자료 영역에서 관련 출판물을 확인할 수 있다.

4.3 연구지원 서비스

국내 대통령기록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우수논문 및 자유연구과제 공모전이 있다. 우수논문 공모전은 2010년부터 연간 진행되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선정된 논문 저자에게 상금을 지급한다.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논문들은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논문집으로 제작, 배포하고 있다. 자유연구과제 공모전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하는 자유 주제로 매년 3명의 연구자들을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편찬·번역 사업의 경우 미국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활동이었으나 국내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연구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편찬 사업의 경우 공개 전환된 기록물에 대한 해제집을 편찬하여 일부는 온라인 콘텐츠의 ‘공개기록물 해설’에 제공하고 있다. 직원 면담에 의하면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대통령 관련 공개전환 기록물에 대한 해제 작업은 완료되었으며, 번역 사업의 경우 이승만대통령 영문서한에 대한 번역작업이 진행 중이다.

면담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대통령기록관에 바라는 서비스로서 웹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 외에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교사인 이용자(S1)는 연설기록을 활용할 때 기록에서 제시되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이용자(S2)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아키비스트와 논의하고 어떤 자료가 그 주제에 적절한지 제안해주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록정보서비스

의 핵심적인 기능으로서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는 거, 활용할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접근하는 부분들이 사실 저희 연구자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일들 중 하나입니다 [...] 조금 더 전문화된 도움을 받고 싶다는 즉, 저희의 주제가 이런 것인데, 그럼 이런 자료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S2).

편찬사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제안으로 교수인 이용자(S3)는 미국 국무부에서 생산하는 중요 외교문서집인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S. (FRUS)’의 예를 들면서 이와 유사하게 공개된 기록물 중 “중요한 문서들을 모아서 편집해서 내놓는”(S3) 서비스를 대통령기록관이 중심이 되어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국내에도 외국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기록물들이 많으며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련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선제적으로 자기들이 대통령기록관 차원에서 중요한 문서집을 스스로 편집을 해서 연구자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 [...] 외부에 자문을 받아 중요한 문서를 선별을 하고 또 기획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자문을 받아서 관련 전문가들하고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관련해서 학술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국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문제인데 한국에서 너무 안 된단 말이죠, 항상 미국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죠, 언제까지 이것을 할 것이냐(S3).

5. 결론 및 제언

미국 대통령기록관 사례 조사와 국내 대통령기록관 현황 및 이용자 인식 조사를 통해 연구 목적의 기록 이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대통령기록물의 학술적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대통령기록물에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았다. 검색, 열람, 연구지원 서비스의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검색 기능을 살펴보면 미국 대통령기록관에 비해 다양한 검색조건을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였고 분류체계 검색 및 빠른 검색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검색에 있어 이용자들은 찾고자하는 대통령기록물과 연관된 다른 기록물을 통합 시스템을 통해 검색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으며 주제어를 통한 검색과 기록물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 제공을 유용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여러 기관에 분산 소장되어 있는 대통령기록물 및 기타 공공기록과 사료 등 1차 자료들이 통합 검색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실무적 접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통령기록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로서 강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공개와 연관된 접근의 문제는 법적인 측면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지만 특히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들은 최대한의 기록물 공개와 접근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열람서비스는 정보공개처리의 틀 안에서만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연구자들의 정보요구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파악하기 위한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키비스트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는 전문화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키비스트가 이용자의 관심 연구주제와 관련된 기록물을 안내하고 관련 주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중요한 기록물을 선별하며 이에 대한 요약이나 해제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기록관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가 정보공개 청구의 법적인 처리와 준수를 넘어서 기록 조사활동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면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반영하는 서비스로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3명의 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인식과 의견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보다 많은 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대통령기록관 연구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술. 2013.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의 초등교육 활용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59-79.
- 김양우. 2008. 이미지 검색을 위한 영역별 기술어에 관한 연구: 한국의 대통령 사진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253-272.
- 문선영. 2010.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열람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박성희. 2010. 대통령기록관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설문원. 2008. 기록정보서비스의 방향과 과제. 『기록인』 3, 11-19.
- 이강훈. 2011. 한국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진영. 2012. 기록자원에 기반한 대통령기록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해영. 2011. 기록관 웹사이트 검색어의 분석과 활용.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93-112.
- 이현혜. 2012. 대통령기록관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전용호. 2008. 대통령기록관의 기록정보 서비스 체계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광훈, 남영준. 2013.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의 분류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419-448.
- 조민지. 2006. 대통령 기록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사례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2), 157-184.
- 조민지. 2009. 미국 대통령 기록관의 역기능에 대한 연구. 『기록학연구』 20, 213-256.
- 조현양, 장보성. 2013. 개별관리 대통령기록물의 연계관리를 위한 통합 메타데이터 설계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105-124.
- 최재혁, 김희섭. 2009. '역대 대통령 웹기록 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1), 77-98.
- Conway, P. 1986. "Research in presidential libraries: A user survey." *Midwestern Archivist* 11(1), 35-56.
- Fawcett, S. K. 2006. "Presidential libraries: A view from the center." *Public Historian* 28(3), 13-36.
- Smith, N. K., & G. M. Stern. 2006. "A historical view of access to records in presidential libraries." *Public Historian* 28(3), 79-116.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Hyun-Yang, & Jang, Bo-Seong. 2013. "A study on designing the metadata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individually managed presidential recor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1), 105-124.
- Choi, Jae-Hyuk, & Kim, Heesop. 2009. "User satisfaction of 'the presidential web records serv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9(1), 77-98.
- Jeon, Yong Ho. 2008. *A study on the archival reference service of presidential archives: the case of korean presidential archive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Jo, Min-Ji. 2006. "A case study on the service programs at the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6(2), 157-184.
- Jo, Min-Ji. 2009. "A study on the American Presidential Libraries focusing on dysfunctions."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0, 213-256.
- Jung, Kwang-Hun, & Nam, Young-Jun. 2013.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guideline for Korean presidential recor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1), 419-448.
- Kim, Sol. 2013. "Application of online contents of presidential archives in elementary educ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1), 59-79.
- Kim, Yang-Woo. 2008. "Discipline-based Descriptors for Image Retrieval: Representing Presidential Images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1), 253-272.
- Lee, Hyun-hye. 2012. *A study on the activation ways of education program in the presidential archive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Jin-Young. 201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model for presidential libraries based on archival resources*.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pecialization, Graduate School of Policy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 Lee, Kang Hoon. 2011. *A Study on Servic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Metho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Moon, Sun Young. 2010. *A study on improving access to archives and services of archival institution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Park, Sung Hee. 2010.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education program in presidential archives*.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Rieh, Hae-Young. 2011. "Analysis and utilization of search terms in archival web sites: a case study of korean presidential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1), 93-112.

Seol, Mun Won. 2008. Directions and tasks of archival reference services. *Girokin(In)* 3, 11-19.

[부록 1] 직원 대상 면담 질문지

1. 대통령기록물 이용자 중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들이 대략적으로 전체 이용자 중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2. 대통령기록관에 방문한 이용자들 중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떠한 경우였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3.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록검색' 메뉴는 나라기록포털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습니까?
4. 연구자들이 비공개된 기록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안내하고 있습니까?
5.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연구지원 서비스(중요기록물에 대한 편찬, 연구비 지원 사업, 온라인 콘텐츠 제공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부록 2] 이용자 대상 면담 질문지

1. 선생님의 연구 분야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2. 가장 최근에 이용하신 대통령기록물의 종류와 이용 목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대통령기록물 중 어떤 유형의 자료를 주로 이용하십니까?
4.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부터 이용하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5. 대통령기록물 중 연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소재 파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6. 대통령기록관에 방문하여 기록을 이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용하셨는지요?
7. 대통령기록관 직원을 통해 자료 소재파악이나 검색, 복사 등의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직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용성과 직원의 친절성, 기록물에 대한 지식 및 전문성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8. 대통령기록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9. 대통령기록관에서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기를 바라는 서비스가 있으신지요?
10.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 있는 검색기능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검색기능에 대한 인상이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1.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사진이나 웹기록 등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어떠한 자료를 활용하셨는지요.
12.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의 소장기록목록을 활용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그 유용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3.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의 다른 메뉴나 기능을 활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14. 대통령기록물 이외에 어떠한 종류의 1차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십니까?
15. 찾고자 하는 1차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십니까?